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

# 위대한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어 지나온 10년. 반만년민족사에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곁싸이는 만년시련을 헤치시며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하여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탄생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키시였으며 모든 사업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 가도록 하시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공화국의 공고한 정

치공토, 공공으로 확고히 확립되게 하여주시였다.

폭잠에 드시였다가도 인민들생각에 다시 일어나시여 새로운 구상을 펼치시고 조국땅을 주름잡는 야전차의 속도마저 더딘것같아 만리창공의 하늘길에도 오르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행복의 별칭지, 사회주의선경들이 솟아올랐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국가의 강성과 번영은 가장 투철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민족자존과 자력자강, 이것은 창건되어 70여년간 무수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물리치며 기적적승리를 떨쳐온 공화국의 자랑찬 전통이며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진 고귀한 진리이다.

인민은 깊은 추억을 안고 우러른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하여 마려하신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

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을.

민족자존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자력자강에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번영이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절대위인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자력자강의 기지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시며 천만인민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키워주시였다.

어느때, 어느곳을 찾으시여도 이 땅의 자원과 기술로 만든것이라든 그리도 기뻐하시며 자력자강제일주의를 더 높이 들고나가도록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켜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현명한 령도아래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에서는 우리가 만든 무케도전차와 궤도전차,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 나라의 곳곳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섰으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것이 아닌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새시대이다.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국을 건설하려는것은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과 몇해사이에 건국 이래 가져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실으로써 이 숙원을 풀어주시였다.

최악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 시련의 길, 지어 회생까지 각오해야 하는 병진

의 험난한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과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놓여있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조국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지니시고 완강히 헤쳐오시였다.

그 나날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과 같은 민족사적사건들이 려이여 이룩될수 있었고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위상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성대히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새롭게 부상한 전략국가의 위상과 눈부신 전망을 만천하에 보여준 일대 국력시위로 되었다.

진정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위협하는 력사의 흑독한 격난들을 격감히 맞받아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한 높이에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반만년민족사의 가장 긍지스러운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배영일



##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로 이끄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78(1989)년 여름 어느날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교포 인사들을 만나주시였다.

한집안식구가 만났는데 집권은 무슨 집권이고 하시며 일행모두를 식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술을 권하시며 건강을 축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포애적이고 화기애한 가정적분위기속

에서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한없이 인자하고 소탈하신 품모와 해박한 식견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매혹된 해외교포인사들이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하자 그이께서는 손을 저어 만류하시면서 나는 식탁에서 그런 말을 듣는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서 많이들 들라고 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잔을 들자고, 모두 건강하라고, 건강해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다시금 그들의 건강을 축원하시였다.

은분들이야말로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로이고 선각자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가 장군님께서 분초가 새로운 국사를 미루시고 무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영구한 마음을 금할길 없다고 말씀 올리자 그이께서는 조국통일보다 더한 국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통일성업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다시금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본사기자

##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들

음악을 해도 민족과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민족사에 이름을 날린 예극적인 재사나 명사의 뒤에는 그를 바른길로 이끌어준 스승이 있는 법이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떨친 윤이상선생에게도 참된 조국을 알게 하고 음악으로 민족과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 스승은 과연 어느분이신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한장의 사진이 있다.

윤이상선생이 창작한 교향곡을 몸소 보여주시며 그와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자애롭고 열정적인 영상이 담겨진 사진이다.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음악에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있던 윤이상선생은 보통학교 3학년때 사범학교를 나온 짧은 음악선생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과 프랑스, 도이쉴랜드에서 음악공부를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세계적인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갖추게 되였으며 그가 작곡한 음악작품들은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국땅에서 윤이상선생이 만난 스승들은 그에게 음악적 재능을 가르쳐줄수는 있었어도 음악으로 조국을 빛내고 음악으로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줄수는 없었다.

더욱이 자기가 태어난 남조선 사회에서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무기징역이라는 종신형을 언도받았을 때 윤이상선생은 허탈감을 금할수 없었다.

철창속에서 그가 창작한 첼로협주곡에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고독한 신세로 절망과 비관, 죽음의 벼랑끝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던 그의 비참한 처지가 비겨있었다.

음악으로 노래할 조국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아픔이였고 민족을 위해 어떤 음악을 창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줄 스승이 없는것이 윤이상선생의 고통이었다.

선생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헤아려주시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주체68(1979)년 10월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간고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투쟁을 잘하면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며 통일과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예극지사라고 불리우시며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잊지 말고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그후 윤이상선생을 또다시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그가 창작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하시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예극적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곡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또한 주제79(1990)년 10월 어느날에는 그와 함께 오찬을 하시며 윤이상선생은 우리 민족이 아끼는 재간둥이이며 선생처럼 예술분야에서 귀한 사람이었다고 건강관리를 잘하여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윤이상선생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곡가로서만이 아니라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한 통일음악가로서 한생을 빛내일수 있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통일성업의 길에서 손잡고 나가자고 하시며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6)

판문점에서 울리신 통일의 봄우리

판문점은 이 나라의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개성과 서울을 오가는 길손들을 위한 널문가게들이 있어 판문점이라 불리우던 이곳은 지난세기 50년대 초 조선전쟁이 진행되면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로부터 얼마나 무수한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아픔이 여기에 서리었던가. 바로 이곳에서 통일을 바라는 애국과 분열을 꾀하는 매국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세기를 이어왔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첫 북남대화의 문도 여기에서 열렸고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호호물자를 실은 차들이 이곳을 넘어가기도 하였다. 신념과 의지를 지켜 한생을 바친 불굴의 인간 리인모도 판문점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공화국으로 돌아왔다. 통일의지로 불리는 애국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또한 민족을 위한 의로운 걸음을 이곳에 남겼다. 이곳에서 전쟁과 평화의 싸웠

다. 침략을 노리는 총구에서 불꽃이 튀어오른것은 그 얼마였고 돌발적인 불상사가 전쟁으로 번져질뻔 한 사태는 또 얼마였는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과 위기가 항시적으로 감돌고있는 이 최전선 최전방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85(1996)년 11월 24일 또다시 찾으셨었다. 당시 미국을 피수로 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며 압살의 칼을 빼들고 덤벼들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실 의지를 지니시고 판문점을 시찰 하셨습니다.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철명비앞에 서서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 념원에서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이

모여 통일행사를 벌리는 이곳 판문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통일철명비를 세우도록 하였고, 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 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 방안과 제안들을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시였으며 그것을 해마다 보고와 연설, 담화를 통하여 친명하시였는데 그 수는 수백건에 달할것이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원칙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원칙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 선언은 겨레를 통일로 부르는 향도의 피상, 통일의 봄우리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격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켜올리신 일대장기》,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시 력사적패거》라며 광범히 보도하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필생의 뜻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으로 하여 판문점은 통일의 상징으로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참된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는 지침

리문국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로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만큼 민족생존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련관되어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민족성원 각자의 삶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속에 매 개인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것은 수난많은 우리 민족사가 새겨주는 진리이기도 하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것도 바로 나라를 빼앗겼기때문 이었다.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열렬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할 때 자기의 운명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하기에 애국은 그 어떤 의무기 전에 인간의 삶의 길, 운명개척을 위한 사활적인 과제로 되는것이다. 분열된 강토에서 살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조선민족은 대대로 하나의 강토에서 한교토를 이으며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지난

70여년동안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합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기꺼이 한몸 내대야 한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의 민족분열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책동에 의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도전은 단호히 거부시키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것은 현시국 우리 민족앞에 나선 지상의 과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는 진리를 새겨안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지난 1월에만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었다.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힘찬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내외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통일교실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천하지대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주지하는것처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다시 있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로 하여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도 오래동안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공동성보다 클수 없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조선사람들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뭉수없이 련결되어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려면 조선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할수 없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자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민

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안락과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모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갈아야 한다. 공화국은 민족적방향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최명숙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중에서 (2015년 8월)

통일을 불러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3)

1948년의 봄은 조완구선생에게 인생의 봄이었다. 온 겨레가 항일의 전설적 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제37(1948)년 3월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석할때 대한 내용을 담은 초청장을 보내주신것이다. 이에 격동된 조완구선생은 김구, 김구식, 홍명희, 조소앙선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남북련석회의의 추진에 관한 특별결정서》를 채택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후 조완구선생은 김구선생을 비롯한 《한국독립당》의 대표들, 김구식, 최동오선생을 비롯한 민족자주련맹

대표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 북행길을 다그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4월 남북련석회의에서 조완구선생을 회의주석단성원으로 명목으로 추대하시였는데, 이는 조완구선생의 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사실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선생의 일행은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여러명의 인사들을 주석단성원으로 보선할것을 재의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회의에서 조완구선생은 주석단성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대표회를 능숙

하게 지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선생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통일정부수립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에도 여러 차례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을 만나주시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남조선의 《서울신문》(1948년 5월 3일부)은 이렇게 썼다.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계기로 평양에 모인 남북지도자들사이에는 남북통일을 도상에 놓고 회담을 진행시키고있다. 즉 지난 24일 오후 6시에는 김일성장군이 남조선의 김구, 김구식, 조완구, 홍명희 등 제석과 정치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셨다. ...》 조완구선생은 남북련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

으로 심장을 뚫어놓았다. 특히 선생은 남조선의 이름있는 인사들과 함께 정치야담다운 대동강의 축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뵈옵는 영광을 지닌 그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이 궁금해하던 문제들과 의견, 제안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명쾌한 해명도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통찰력과 뛰어난 지략, 강철의 의지와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정을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에 휩싸이게 하였다. 못맛을 이날 소박한 점심식사자리도 마련해주시고 남조선대표들앞에 손수 송어회와 어죽을 옮겨놓아주시기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선생은 감격이 목이 메어 눈물을 적시였다. 그때 조완구선생이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안은 철리가 있었다. 그것은 절세의 애국자의 빛을 받아야 애국의 씨앗도 싹트고 꽃피게 된다는것이였다.

조국통일과 새세대들의 책무

남조선의 《강원일보》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남조선전역의 734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총 7만 2 52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통일의를 알아보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4명중 3명의 학생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의 새세대들속에서 통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끊어진 민족의 혈액을 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민족의 최대숙원을 하루 빨리 풀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통일애국성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앞에서는 이 땅의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숭고한 사명감을 받아안게 된다. 새세대들은 조국통일의 철차를 기운차게 몰아가야 할 통일의 주역이며 통일된 강토에서 북락을 누릴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통일이 없으면 민족의 미래도, 새세대들의 밝은 앞날도 없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나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

쟁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였다. 지나온 년대들에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주도한것도 다름아닌 그들이였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은 오늘날도 매일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해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이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이념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련련함하여 투쟁한다면 조국통일의 그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대표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신 장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



# 황금해와 《이제 어경》 - 시대를 뛰어넘는 어로공들의 삶



지난 2월 초 공화국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남다른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누가 보건말건 자기가 맡은 일터와 초소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온 사람들중에는 어로공들도 있었다.

이 나라의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공훈어부칭호가 안겨지던 그 시각 해풍에 그슬린 그들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고이였다.

날과 날을 선창우에서 맛고보내며 때로는 광란하는 파도와 싸우면서 민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

려간 그들. 인민들의 푸짐한 식탁우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어머니의 가슴뜨거운 말씀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물고기잡이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기술인 그들의 남다른 공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난날 어부들을 두고 사자바를 늘 지고 산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공화국에서 어로공들은 인민사랑의 정책을 앞장서서 만드는 어로전사라는 값높은 부름을 가슴에 안고 살고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려는 정경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발돋어나가는 어로공들이 있어 황금해의 《이제 어경》이 펼쳐지고있다. 정경하는 원수님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시대의인 황금해와 《이제 어경》.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자못 크다.

찬비가 쏟아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며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사름이 풀린다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는 어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제 어경》이라는 또 하나의 선경이 펼쳐질 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정경하는 김정은원수님.

물고기를 받고 좋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차거운 기운도 느끼지 못

## 농업과학기술연구의 거점을 찾아서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지금 공화국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통일신보》 기자는 공화국의 농업과학기술연구거점인 농업연구원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우방식 농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연구원에서는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지난해에 농업연구원 본원지에는 지효성비료연구실, 유전자분석실, 선종연구실, 유기재료분석실, 농업화학제품분석실을 비롯한 수십개의 연구 및 실험실을 갖춘 농업생물학연구소, 식물보호화학연구소, 농업나노기술연구소, 농업화학연구소가 훌륭히 꾸려져 준공되었다.

이 연구소들에서는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는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성과를 도입하여 병해와 넘어질건널성이 강하면서 수확이 높은 논벼 품종과 역병저항성이 강한

구하고있으며 발효물연구소에서는 농업정보화연구소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종자배치와 종산간지대물, 저수확에서 알곡수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하고있다.

농업나노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집단의 과학자들도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하루빨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 피라는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 불같은 일년을 안고 연구사업의 첫걸음을 기운차게 내딛는 농업연구원 과학자들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진

아이의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있었다. 인상에 남았던 일기를 여기에 인용한다.

○월 ○일 날씨 흐림 선생님의 얼굴

육류아동병원의 중학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선생님은 나에게 많은것을 해주셨다. 처음에는 학급동무들보다 뒤떨어질까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동무들보다 더 많이 배웠을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 수학공식을 새로 배웠는데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다.

때번 그랬지만 오늘도 선생님은 유쾌한 대신에 웃으시며 차근차근 가르쳐주셨다. 선생님이 웃으실 때마다 조마조마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공부를 더 잘해서 선생님께 고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린 날씨로 밖은 좀 어두웠지만 선생님이 웃으시는 우리 교실은 밝았다.

나는 퇴원후에도 선생님의 밝은 얼굴을 잊을것같지 못하다.

○월 ○일 날씨 개입 교실에 온 손님들

오늘 우리 교실에는 많은 외국 손님들이 찾아왔다. 영어수업이 한창이었는데 한 남자손님은 엄지손가락을

## 사라져가는 어촌

남조선에서 어민들의 경제적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어업조건이 악화되는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있다. 바다물온도상승과 바다오염으로 어장이 소멸되면서 어획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여기에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짧아지면서 물고기수요가 줄어들어 턱어를 비롯하여 수요가 높았던 물고기가격이 폭락하고 어민들의 수입이 평년의 50%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당국의 그릇된 어업정책과 산업개발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원인의 하나라고 되고있다.

당국이 어장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해상풍력발전을 다그치면서 어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있다고 한다.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일정한 구역은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데 이것은 어장이 없어지는것으로 된다. 어민들이 어민생태계를 파괴하는 당국의 행위에 반발하여 항의서한을 보내고 법적소송을 벌리는 등 어장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있지만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있다고 한다.

산업개발도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1995년-2020년 사이에 건설된 부산 신항으로 하여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

하던 1300여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어업권을 빼앗겼으며 지난 30년동안 진행되어오는 새만금사업으로 이 지역에서는 조개류가 사라지고 전라북도의 어획량이 50%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204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있는 제주신항건설도 2.0만 1000㎡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때문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나 같은 어장이 대폭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어민수가 체계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어업부문의 생산력을 잃고있는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어민수를 보면 2015년 12만 8400여명에서 5년사이에 23.4%나 감소하여 2020년에 10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것은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농민보다 무려 3배이상에 달하는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의 평균나이를 보아도 60.8살로 농민들의 평균나이가 59살보다 많고 고령화비율은 36.2%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비율보다 2.3배나 높다고 한다.

한심한 경제적처지로 하여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은 급격히 늘어가고있지만 새로운 인구유입은 거의 없고 어촌인구의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어촌소멸위기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 철

## 독자문답 제카나라도통로 최진희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의 의사담당구역제는 어떤것인가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주민구역의 세대주민들을 고정담당하여 일상적으로 건강관리와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인민적인 보건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건에서만 볼수 있는 우월한 의료봉사제도이다.

공화국의 인민보건법에는 《국가에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말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의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할 전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공화국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가

관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전국적범위에서 확립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건부문에서 의사대렬을 늘리고 담당세대수를 줄여 나가며 의사가 담당세대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전심전력하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주실데 대하여 가르치셨다.

정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요 당대회와 전원회의들에서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담당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방호밑에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고있다.

본사기자

## 복순이 (2)

교실에도 가보셨었다. 《철민선생, 나 그 교실에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에 그는 여느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병원측에 이야기해서 안내원을 한명 불러달라고 했을걸 그랬다면서. 입원실, 치료실과 어깨를 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바치는 선생님의 사랑이 이 교실에 정들게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먼저 퇴원한 동무들도 정말 떠나기 섭섭했습니다. 나는 복순이의 곁에 미소를 활짝 담고 서있는 교원에 게 물었다. 《건강한 아이들도 학습열

시면서 저 사람들은 오스트랄리아사람들인데 그들도 영어 사용한다. 복순이가 외국어공부를 꾸준히 하느라면 통역원이나처럼 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수 있을것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었다.

나는 아쉬웠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다면 오늘 오스트랄리아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하여, 병원에 대해서도 마음껏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들의 기쁨에 대하여 자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난 앞으로 영어공부를 잘해서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 통역원이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꼭 내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나는 복순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의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앓는 아이들의 학습열의가 대단한걸 보니 선생님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은 이야기했다. 《비결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들을 단순히 학생이나 환자들이 아니라 친자식처럼 대해주고있습니다. 그애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또 치료사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설명했다. 이곳 교육자들은 어린 환자들의 성격과 취미, 지능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문제의 본질을 대변에 리해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잠시 말을 끊었던 교원은 《언제인가 한 외국손님이 우리 교실을 참관하고나

서 이 병원이야말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다같이 받을수 있는 세상에도 없는 병원이라고, 사회주의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정말 옳습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의 자식들이 이처럼 훌륭한 병원에서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을 받는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이 퇴원후에도 자기를 배우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랄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복순이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그의 어머니도 말했다. 《처음 복순이를 병원에 입원시킬 때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난 이번 학기말시험에서도 꼭 1등할래요.》 복순이는 귀엽게 덧이를 보이며 활짝 웃었다. 모두가 그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복순이의 손을 잡고 옥류 아동병원을 나서는 나의 눈앞에 옥류아동병원을 품에 안은듯한 평양산원이 일어났다. 불현듯 나의 머릿속에는 온 나라 아이들이 따듯히 안아주는 조국의 품에 대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재중동포 김영란



# 《참으로 괴이한 선거》

《20대대선은 6무선거로 불린다. 정책과 대안이 없고 로동과 진보는 실종된채 역대급 비호감후보간에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띠면서 불어선 이름이다. 초보정신은 사라지고 량당이 교착되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당장 무엇을 할것인가?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이 현 《대선》국면을 두고 평한것이다.

## 《정권교체》 대 《정치교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두 극으로 고착되다 싶어진 남조선의 《대선》은 후보들간, 여야당간의 치열한 대결전으로 치달고있는 형국이다.

《국민의 힘》은 무조건 《정권교체》를 웨친다. 현 《정권》의 부동산가격 폭등, 청년실업, 안보무능 등 정책실패와 부정부패를 부각시키면서 선거판을 대결판으로 만들고있다.

현재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선거유세와 인터넷을 통해 현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좌파》,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데 골몰하고있다고 한다.

## 카멜레온도 놀랄 변신술

《역대급의 비호감선거》로 불리우는 이번 《대선》에서 량당과 후보들이 지지확보를 위해 모지름쓰면서 여당은 아당지지층을, 야당은 여당지지층을 끌어당기려고 변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군사독재자가 《정치를 잘했다》는 망언을 한

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적은 《신심성공약》들을 마구 랍발하는것도 그러한 실증이다.

## 피터지는 싸움판

두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이 상대측 후보에 대한 비판전이다.

《국민의 힘》은 자기 당후보와 가족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 《날조된 거짓》이라고 피대를 둘러대며 극력 비호두둔하고 있다.

그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었다, 리재명의 처가 공무원들을 사사용무에 부러먹었다, 리재명의 아들은 《병력비자》이다 등의 여론을 내뿜고있다고 한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원로들과 청와대 출신인물들로 리재명을 적극 밀어주면서 윤석열의 병역피의혹과 검찰총장배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의 《1일망언》을 비롯한 언행실수와 처의 주가조작, 장모의 부패행위를 결코들며 맞받아친다고 한다.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끌어당겨보려고 놀라운 변신술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는 대장동개발특구의혹혐의자들이 《윤석열은 원래 피뎠는 사람이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한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장동은 윤석열게이트(부정부패)》로 못박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의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 각계층이 《검찰대통령》이 통치하는 검찰공화국의 도래, 《정적들을 말살하기 위한 보복수사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사회적대립과 갈등이 고조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있다.

또한 《법외형의자들끼리 대결하는 추악한 선거》, 《덜 나쁘고 덜 무능한 (대통령)을 뽑는 괴이한 선거》라고 평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씩씩대로 씩씩 남조선정치의 추악상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 전쟁하수인의 대결망동

최근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 《3자공조》, 《포괄적동맹》강화에 대해 떠들며 미국과 일본이 벌리는 전쟁불장난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새해에 들어와 다국적연합반잠수함훈련, 다국적연합공중훈련 등을 연이어 벌려놓았고 2월말~3월초에는 다국적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일본도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주도의 연합훈련에 적극 참가하면서 《전쟁가능 나라》로 변신하기 위한 군사대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이러한 미일상전의 불장난소동에 남조선당국은 《빈틈없는 군사적공조》를 운운하며 적극 참가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 각지에서 포병실란사격훈련, 통합상륙호차훈련, 해상기동훈련, 대규모야외혹한기훈련, 산악종합훈련 등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이 바라는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고 항구적인 조선반도의 평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일상전과 결탁하여 동족을 겨냥한 각

종 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것은 미일상전의 전쟁하수인노릇을 하겠다는것이 동족과 끝까지 대결일변도로 나가겠다는 적대적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평화》, 《대화》란 저들의 호전적,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선택한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의 길이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자멸행위,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범죄행위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장담하였는데 그 말에는 상대방을 눈아래로 깔아보려는 오만함이 배어있었다. 실제로 윤석열은 《물밑에서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협상이라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국민의 힘》 대표라는 자는 선거비용 등을 운운하며 《한쪽이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는 철수》라고 하면서 《국민의 힘》의 《대통령선거후보사퇴》라는 미묘한 말을 던지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이 제안한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은 《지지률차이가 4배되는 상황에서 말이 되는가》고 하면서 일축해버렸다고 한다.

단일화가 무산되자 《국민의 힘》은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희망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안철수가 후보를 사퇴하면 후에 잘 봐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야권후보단일화가 결렬된것은 단일화에 대한 방식차이의 문제도 아니고 견해의 차이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의 안중에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것은 없고 오직 권력이라는 비계명어리를 제가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는것이다.

야권후보단일화를, 이것은 권력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치시정배들이 연출한 너절한 정치막간극에 불과하다는것이 시간간 거에 따라 더욱 드러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 너절한 정치막간극

남조선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사이의 야권후보단일화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 《경기도지사후보추천》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 극심한 민생고, 암울한 미래

최근 남조선에서는 극심한 민생고로 하여 민심이 흉흉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마저 치솟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차치되는 고통은 배가되고있다고 한다.

《국가》채무만 보아도 3500억US\$나 더 늘어나 현재 9300억US\$에 달하고 있다. 20대, 30대 실업자는 이전보다 더 증가한 상황이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0년만에 최대폭인 2.5%를 기록하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은 2021년 8.7%로서 지난 5년동안 가장 높아졌다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가격을 대비해보아도 남새와 물고기 등 부식물가격이 배로 올라 주민들의 식생활과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과 정치권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유지와 정쟁에만 여념없다.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미처 기억도 하지 못한채 또 다른 광고용공약들을 마구 랍발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은 이렇게 피력했다. 《선거가 파편처럼 무리배들의 벼슬쟁탈전으로 변질된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어중이떠중이들이 저 잘났다고 나와서 되지도 않을 감언리설로 민중을 속여먹는

본사기자 김광혁

## 역시 《성누리당》

《복지발정제》, 《밤에만 쓰는것이 너자의 용도》, 《마싸지너 고르는것은 인생의 지혜》와 같은 망발도 서슴지 않고 늘어놓는가 하면 해외에 나가 라제춤을 추는 식당에 전문적으로 출입한것도 《국민의 힘》의 시정배들과 그 원조들이고

남조선 각계층이 《국민의 힘》을 가리켜 《성누리당》, 《색정당》이라고 야유조소하고 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날 남조선민심은 보수패당에게 침을 뱉으며 말한다. 개소리 3년가도 황모가 못되는 법이라고. 한일혁



《왜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서 죽으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남조선에서 제작된 연극 《이들병의 엄마》중에서 나오는 대사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생애같은 아들을 군대에 내보냈다가 잃은 엄마들의 부르짖음이라는것이 연극을 본 관객들의 평가라고 한다.

이미 공개된것처럼 지난해 6월 남조선해군에서 한 사병이 선임병들의 폭언, 폭행, 집단따돌림으로 하여 자살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그를 폭행하면서 《내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 폭력과 폭행이 만연된 부패집단

떠나면 좋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병이 이에 대해 신고했으나 함양은 선임병들과의 《화해》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병이 자살한 후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폭행한 선임병들중 1명만 형사립건되고 나머지는 고작 3달분 감봉처벌을 받았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군내에 만연된 반인권행위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남조선군내에서 폭행, 가혹행위는 총 4275건으로서 그 이전 5년간 발생건수보다 600여건 더 늘었다고 한다.

폭행의 《리유》를 보면 인사를 안해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거나 늦게 와서, 표정이 마음에 안들어서 등이다. 군내 성폭력사건도 만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난 4년간 군내 성폭력사건이 폭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군내 성폭력사건은 2017년 10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말에는 999건으로 약 1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폭언, 성폭력사건이 급증하고있으나 실행선고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것이다.

남조선군부가 《병영문화개선》을 운운하며 군사법제도를 개선한다. 성폭력에방 및 대응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부산을 피우고 있지만 군내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는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후적으로는 군내 폭행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엄벌하지 않기때문》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한 시민사회단체도 《누게지출속법안으로 반복되는 군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게 하라》고 비판하였고 언론, 전문가들은 《군내 성폭력의 주범은 군사제이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남조선군내에서 폭력과 살인, 성폭행이 만연되고있는것은 폭력과 강권이 전통화된 미국식병영문화, 《인간은 인간에게 승냥이》라는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너를 죽여 내가 산다》는 반인륜적가치관이 남조선군의 풍조로, 일상생활로 되였기때문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 섬나라의 변함없는 재침략욕

일본이 지난 22일 그 무슨 《다게시마의 날》 기념행사라는것을 또다시 벌려놓았다고 한다. 《다게시마의 날》 기념행사라는것은 일제가 1905년에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시마네현소속이라고 날조해놓은것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2005년부터 해마다 벌리는 정치판대국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저들것이라고 우기며 기어이 빼앗으려는 왜나라족속들의 파렴치성과 재침략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세기에 저지른 조선인강제징용범죄의 증거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고 발

악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력사의 흑암속에 묻어두려고 외국남 조책동을 벌리고있는것도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여론을 오도하여 재침략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이 아니다.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책동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전쟁가능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책동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기도에 따른것이다.

그 무슨 《다게시마의 날》 기념행사라는것도 일본인들에게 조선

민족에 대한 복수심을 주입시켜 재침략을 실현해보려는 섬나라족속들의 음흉하고 계획적인 모략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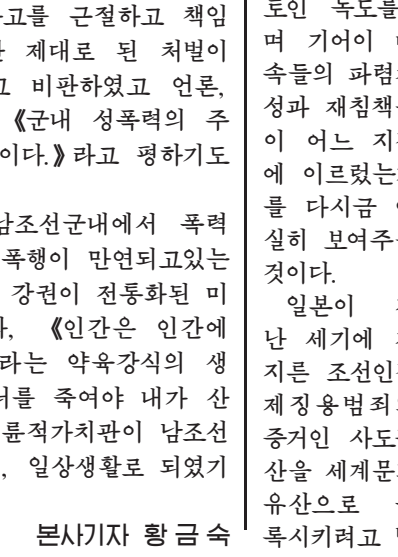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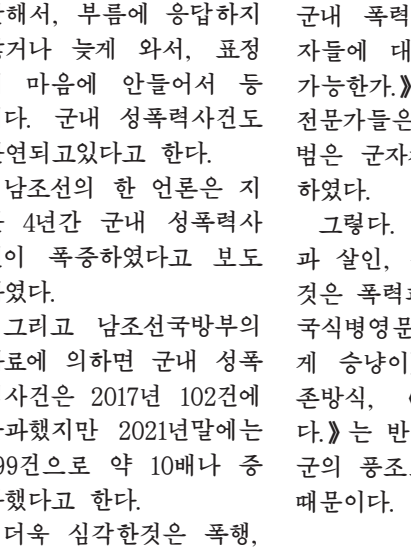
무려한건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명백히 조선민족의 고유령토이다.

일본이 어리석은 재침략을 버리지 않고 령토강탈, 재침략등에 광분한다면 그것은 조선민족과 인류의 무자비한 징벌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재침의 《징검다리》로 만들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려야 한다.

독철을

독도는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려시기의 대화궁터

우리가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립금석실장과 함께 이른 곳은 주변이 산봉우리들로 막혀있고 앞이 트인 통성구역의 아늑한 한 골짜기였다. 이곳이 바로 고려시기에 왕궁으로 건설하였던 대화궁터였다.

그 물음에 대한 실장의 대답은 자못 진지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년전 고려는 이곳의 지정지세를(대화지세) 즉 나라가 크게 번성할 곳이라고 하면서 수도를 개경(개성)에서 서경(평양)으로 옮기려고 왕궁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12세기 당시 개경왕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가지 리유로 천도는 실패하고 대화궁도 자

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유적의 발굴로 평양이 조선의 첫 고대국가 고조선과 동방의 천년강국 고려의 수도였을뿐 아니라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시기도 제2의 수도로 번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립금석실장은 대화궁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자며 우리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유적의 발굴로 평양이 조선의 첫 고대국가 고조선과 동방의 천년강국 고려의 수도였을뿐 아니라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시기도 제2의 수도로 번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20세기초에 들어서서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은 국내와 주변나라들은 물론 대양 건너 미국에서까지 힘차게 벌어졌다. 그 실례의 하나가 평양출신의 열혈청년 장인환의 애국적저사이다.

열혈청년 장인환



20세기초에 들어서서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은 국내와 주변나라들은 물론 대양 건너 미국에서까지 힘차게 벌어졌다. 그 실례의 하나가 평양출신의 열혈청년 장인환의 애국적저사이다. 일제의 조선침략으로 하여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두고 비분과 울분에 차있던 그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저지시킬 한가닥의 회망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석상에서 《일본이 조선(보호)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에 유익한것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일제의 조선강점을 극구 찬양하고 조선민족을 모독하는 망발을 서슴없이 쉼없이 했다. 재미교포들은 그자의 강도적인 폭언을 규탄하고 스트리브스에게 분노의 격려를 안겨 퍼뜨려서가 되게 만들었다.

파 스트리브스일행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때마침 스트리브스의 뒤를 따르던 장인환은 그자를 향해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스트리브스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거꾸러졌다. 조선속담에 《되는 지은데로 가고 묻은 꼴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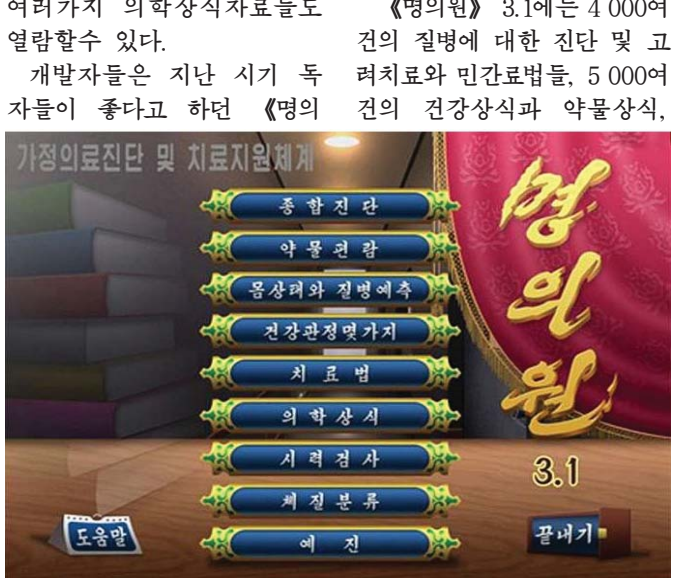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명의원》 3.1

공화국에서 가정의료진단 및 치료지원체계 《명의원》 3.1이 새로 개발되어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있다.

《명의원》 3.1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자료와 형식들을 갱신보충하였으며 실제로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발생물이 높은 질병치료상식》, 《약리학상식》, 《몸상태에 따르는 질병예측》, 《건강상태판정 및 치료》를 비롯한 여러 부분의 내용들을 새롭게 보충하였다.

의학상식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들어있어 임의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자기의 몸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손전화기와 소형 컴퓨터에서 시력검사와 색맹검사를 할수 있으며 체질을 분류할수도 있다.



《명의원》 3.1에는 4,000여건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고령치료와 민간요법들, 5,000여건의 건강상식과 약물상식, 리온에서 잘 알수 있다. 《명의원》 3.1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자료와 형식들을 갱신보충하였으며 실제로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발생물이 높은 질병치료상식》, 《약리학상식》, 《몸상태에 따르는 질병예측》, 《건강상태판정 및 치료》를 비롯한 여러 부분의 내용들을 새롭게 보충하였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저대 제작방법

저대는 입가에 대고 불게 되어있는 목판악기로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우리 선조들속에서 널리 리용되어온 우수한 민족악기들중의 하나이다. 고구려시기에 처음으로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가로부는 악기라고 하여 횡취 또는 횡적이라고도 하였다.

저대는 입가에 대고 불게 되어있는 목판악기로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우리 선조들속에서 널리 리용되어온 우수한 민족악기들중의 하나이다. 고구려시기에 처음으로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가로부는 악기라고 하여 횡취 또는 횡적이라고도 하였다.



저대에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흥취와 맛을 안겨 주는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허리를 보호하자면

사람들이 지나친 운동을 하거나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면 허리를 다치게 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움직일수 없게 된다. 이를 막자면 허리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돌칸한증 (7) 그림 김윤일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내뒀었다. 그 순간에 와지곤 하는 소리와 함께 불 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에 무너져내렸다.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내뒀었다. 그 순간에 와지곤 하는 소리와 함께 불 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에 무너져내렸다.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내뒀었다. 그 순간에 와지곤 하는 소리와 함께 불 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에 무너져내렸다.



이 한중간은 최서방의 한중간이 아니라 여러분네의 한중간이였다. 그러니 마음놓고 아무때든지 리용하시우. 이제는 한중간이 없어서는 안될 우리네 생활의 멋으로, 향기로, 풍속이 되었다. 지고고 구어야 풍속도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와지구 영원히 이어지는것이니 이 최서방이 없어도 여러분네가 있으면 이 한중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 선비

평강을 마주 향해 두 선비가 올라오고있었다. 왼쪽길로 올라오는 선비는 깃을 썼는데 입을 하나 벌리고있었고 오른쪽길로 올라오는 선비는 앞가슴에 떡보따리를 안고있었다.

은 내 보따리속에 있네. 우리 마누라가 가면서 먹으라고 앞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런데 꺼내기가 싫어서 먹으수가 없구만. 수고스러우대로는 자네가 좀 꺼내 내 입에 넣어주게나.

사화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내뒀었다. 그 순간에 와지곤 하는 소리와 함께 불 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에 무너져내렸다.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내뒀었다. 그 순간에 와지곤 하는 소리와 함께 불 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에 무너져내렸다.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내뒀었다. 그 순간에 와지곤 하는 소리와 함께 불 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에 무너져내렸다.

수천마리로 불어난 파랑새
그것이 나라의 비밀이 새긴것은 대신들 이 입건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누구나 교훈을 받게 하였다.